

大韓建築士協會 10周年에 부쳐

崔 昌 奎

(前 韓國建築家協會長)
(新進建築設計事務所 代表)

創立 10周年 記念式이 多彩로운 順序를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한다. 果然 10周年을 慶祝해야 할 것인지 조차 疑訝하지만 그래도 10年을 걸어온 것은 事實이고, 其間 많은 問題, 事件, 物議가 있었지만 時間의 偉大한 힘이 그럭저럭 다 뚜껑을 덮어주었다. 허나 그 問題點들이 根絶된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脆弱點만 있으면 露出化될. 素地를 多分히 가지고 있다. 協會로서의 体制構成과 組織編制가 그렇고 任員과 會員과 決議機關과 執行部, 本部和 支部, 協會와 行政府, 建築法規와 行政 等等의 相對的인 職責과 權限과 区分不明瞭 等 例舉하면 끝이 없을것만 같다. 이러한 処地에 社會的인 環境, 公害, 人口, 食糧 等 直接 間接으로 建築과 關係되는 要素들의 混迷속에서 人間을 保護하는 建築創作에의 至難性을 生覺할 때 建築이란 學問의 無限性과 多樣化되여만 가는 生活樣式을 生覺할 때 나만이 할 수 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 洪吉童의 思考로서 言行한 다면 큰 錯誤일 줄 안다.

確固한 秩序위에서 協會 建築士라는 本質的인 正道가 무엇인가를 把握하고 連帶意識을 가지고 參與해야만 하겠다. 靑寫眞만 구어서 許可手續이나 해주고 代價만 받으면 된다. 하루에 100件을 處理하면 어찌 나의 能力인데 式의 安逸한 思考로서 나간다면 우리 建築士會員의 喝望인 社會的인 認定 尊敬, 權威를 어떻게 獲得할 수가 있을가 말이다.

이 社會에 集團的인 福祉增進이란 어려운 일이고 登山, 낚시, 庭球, 골푸를 치면서도 더 잘 살겠다면 그 限界는 어디까지일가 要는 集團속의 每個體들 間의 格差는 무얼로서 解決할 수 있으며 또 解決한다 하더라도 時間的인 限界點은 어디이며 社會大勢에의 挑戰이나 逆行이 우리들 建築士들의 힘으로 可能한가를 가늠해 보고 할 일인 것만 같다. 10年이 瞬息間에 가버렸다. 未來는 이 國家와 民族이 存續하는 날까지라고 보아야 한다면 長久한 것이다. 拙速 即興은 確實히 삼가야 할 일이겠고 우리代들이 할 일과 다음代들의 할 일이 区分되어야 할 것이다. 機構擴張 予算增加 規模肥大는 반드시 發展이나 向上과 同意語가 될순 없는 것이다. 오직 默默地 誠實히 正道만 걸어가자고 바랄뿐이다. 가노라면 우리들 앞에도 꽃피는 길 이 티여질 것만 같은데……!!